

## 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사이트의 생성 및 유지에 관한 심리적 측면들: 운영자들에 대한 면담 사례 연구\*

문 성 원<sup>†</sup>

우석대학교

자살 사이트를 크게 프로 자살(pro-suicide) 사이트와 안티 자살(anti-suicide) 사이트로 분류하고 운영자의 관점에서 자살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하여 자살 사이트 운영자와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에게 면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운영과정과 운영자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자살 사이트의 경우, 운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병리 수준이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이 깊었으며, 안티 자살 사이트의 경우는 안티 자살 활동을 통해 사이트의 방문자 뿐만 아니라 그 운영자도 치료적 체험을 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운영자의 의도와 달리 사이트 설계 및 운영 방식의 미숙으로 인해서 자살을 촉발시키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었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주된 문제 영역을 부모와의 갈등으로, 자살 사이트 방문과 관련된 주요 연령대는 청소년층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자살 사이트 문제와 관련된 상담 심리학자의 역할,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에 의한 자살 구호 체계의 개발, 자살 예방을 위한 또래 중심의 지지적 네트워크 개발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살사이트, 안티자살 사이트, 정신병리, 청소년, 자살 구호, 자살 예방

---

문성원은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청소년개발원에 의하여 지원됨.

† 교신저자 : 문 성 원,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과  
전화 : 063-290-1377 E-mail : drswmoon@hanmail.net

인터넷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폭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원자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2000년말 “자살이 생각날 때(한겨레신문, 2000. 12. 15)”란 한 인터넷 사이트를 매개로 해서 발생한 동반 자살 및 청부 자살 사건은, 생산적인 욕구 뿐만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마저도 손쉽게 충족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임을 보여주었다.

자살 사이트는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희생자들을 발생시켰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6개월만에 총 25명이 자살 사이트로 인해 희생되었고(문성원, 2002), 무엇보다도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한 자살 사례들이 최근까지 끊이지를 않고 있다(한국일보, 2003. 8. 31). 학계의 무관심과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자살 사이트를 표방하는 사이트들만이 감소했을 뿐, 여전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자살 사이트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자살 사이트라고 하는 외양과 자살이라고 하는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근 방법에 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자살 사이트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내는 심리적 동인과 자살로 치달도록 하는 자살 사이트 내부의 심리적 과정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1991년의 usenet 게시판에서 비롯된 ASH(alt. suicide.holiday)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자살 사이트들은 시공의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익명성하에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손쉽게 메시지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

겨지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누군가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자살 사이트들은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교환을 도와준다. 무엇보다도, 자살의 예방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른바 ‘안티(anti)-자살 사이트’들에 비해서, 자살 사이트는 자살에 대해서 공격적인, 즉, 프로(pro)-자살 사이트이다.

자살 사이트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공유가 가능하다는 ASH류의 주장이외에 죽을 권리에 대한 옹호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심리치료자에 의해 입원 조치가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일 없이 자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자살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신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들 집단들이 실제로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cheeres, 2003). 인터넷상에는 자살을 긍정적으로 옹호하고, 정신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뉴스 그룹이나 게시판이 많이 있다. 이 사이트들은 정신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일은 유해무익한 것이라면서 그와 같은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Dobson, 1999). 실제로, Gonzales의 사례를 보면(Smith, 2003), 그녀가 방문했던 자살 사이트에서는 자살은 그녀의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었으며 치사량의 청산칼륨을 얻는 방법과 그것을 각테일에 섞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 해 전부터 ‘엽기’가 새로운 유행어로 떠오르면서, 엽기를 추구하는 흐름의 하나로서의 자살사이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 우리말 큰사전(1986)에 따르면, 엽기란,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남달리 흥미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터넷

에서 엽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개의 경우, 더러움, 잔인함, 광기 혹은 지독한 냉소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내용을 다룬다고 하여도 남들의 주목을 끌만큼 매우 자극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즉, 공개적 언급이 금기시되는 주제들, 배설물이라든가 죽음 혹은 성에 관한 내용이 노골적으로 다루어지는 일이 많다. 따라서, 잔혹함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에서는 대개의 경우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자살에 관한 것도 포함되게 되었다. 엽기 문화에 편승하는 자살 사이트들은, 사회적 맥락 단서가 대면 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평범한 메시지는 상대방의 주의 자체를 끌어나가기가 매우 힘들고 상대방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만한 메시지는 그와는 반대로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한다.

운영진의 의도나 사이트 전체의 경향성이 안티 자살일 뿐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안티 자살 사이트에 의해서도 자살은 발생했다(한국일보, 2000. 2. 2; 경향신문, 2002. 2. 24; 한겨레신문, 2002. 4. 19). 운영진이 미처 응답을 다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글이 등록되는 과정에서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방법론을 알려주는 글이 게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살 사이트 문제는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응의 그늘에서 조용히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도 초중고생 응답자의 13.9%는 자살 사이트나 자살 커뮤니티 방문 경험이 있었다(전자신문, 2003. 10. 1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많지만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여 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층은 자살 사이트의

주된 희생자였다(문성원, 2002). 청소년층의 빈번한 희생에 대해서는 Baume, Cantor와 Rolfe(1997)에 의해서도 일찍이 언급된 바 있다. 그들은 상호작용적인 자살 노트가 게시된 후 발생한 자살 사례를 통해, 인터넷의 잠재적 영향력이 자살 사고를 타인과 공유하려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자살 행동에 관련하여 인터넷의 복합적 작용에 특히 취약한 것은 젊은 사람들임을 밝혔다. Alao, Yolles 와 Airmen(1999)도 자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은 자살 시도 2건을 다루며, 16세 소년의 사례를 포함시켰다.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을 분석한 문성원(2002)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사례들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발생했고 자살을 완료한 10건중 19세 미만이 관련된 경우가 6건에 달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평균 19.75세에서 자살이 시도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가장 활발한 이용자층의 하나로서 정보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을 만큼의 심리적 강건성을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특유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과 결합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생각이상으로 파괴력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자살 사이트로 인한 사상자가 40명이 넘고(문성원, 2003), 자살 사이트의 한 여성회원을 다른 남성회원이 살인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YTN, 2003), 자살 사이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없이 단지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정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위험한 대응이다. 자살 사이트의 원인 기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규제는 자살 사이트의 형태 변형만을 불러올 뿐이기 때문이다. 무방비 상태로 잠재적 위험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심리적 동인은 무엇이고 자살 사이트의 내부에는 어떠한 심리적 기제들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부분에 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황 분석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안되는 대안들이 효율적일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자살 사이트로 인하여 자살을 감행한 사람,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내는 사람, 자살에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자살 사이트 문제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이트의 희생자들에 대한 사례 연구(문성원, 2002)에 이어서 자살 사이트 운영자의 관점에서 자살 사이트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문성원(2002)의 연구에 포함된 사례들은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이 자살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 요인과 인터넷 특유의 위험 요인이 모두 고려될 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었지만, 희생자의 관점에서 자살 사이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누가 왜 취약한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자살 사이트가 어떤 이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가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등에 대해서는 운영자에 대한 면담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사이트의 생성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을 밝힘으로서 자살 사이트에 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비단 자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역기능적 인터넷 이용의 예방과 그에 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 대상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문성원, 2003)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살 사이트 운영자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하려 하였으나,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볼 수 없었던 까닭에 접근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 대외적 자료에는 해당 대상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므로 연락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유관 기관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슈화된 사건들과 관련된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를 접촉하려는 시도는 중단했다.

다음 단계로, 면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살 사이트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통하여 직접 모집을 시작하였다. 여러 인터넷 게시판과 여러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자 모집 활동을 벌였으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모 대학 게시판을 통해 한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왔지만 답장을 하면 다시 연락을 받기까지 수일이 걸릴 만큼 의사소통 자체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여러 차례의 이메일 끝에 원하는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을 통해서 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담긴 이메일을 받아보니 자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인터넷 이용 경험 자체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해당 이메일의 내용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 기간 전체에 걸쳐서 면담에 응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온라인 모집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모집에 대해서 지원한 해당 지원자는 대면 상황에서 직접 연구자에게 면담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 자살 사이트의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이슈화된 사이트들 이외의 자살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시도하였다. 해당 안티 자살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내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존재한 바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두 2명이 면담의 대상이 되었다.

### 절차

두 명의 면담 대상자를 찾아내는 일이 각각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으므로 면담에 이르는 과정과 실제 면담의 진행 과정 또한 제 각각 서로 달랐다.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은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면담에 응할 의사를 밝힌 만큼, 면담에 관한 의사소통 채널을 택하라고 하자 대면 조건을 선택하였다. 첫 면담을 하면서 추가적 면담에도 동의할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살 사이트 관련 상황에 대한 탐색에 이어 본인이 동의할 경우보다 장기적인 면담을 할 잠정적 계획을 세운 후 피면담자와는 먼저 5회의 면담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면담자의 외적 요인에 의해 면담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계획은 중단되었다.

따라서, 면담이 갑자기 중단되기까지 운영진 자신과 자살 사이트의 개발 동기 및 운영 과정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각각 약 50분간 총 두 차례의 면담이 개방형 질문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Fontana & Frey, 1994)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면담을 하기까지

모두 9통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그중 직접적으로 연구와 질문과 답변은 각각 1통씩이었다. 연구자가 신분과 연구의 목적,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등을 모두 밝히고 만나자는 뜻을 이메일로 전하자 대면 만남은 곤란하나 온라인상을 통해서 질문을 할 경우 답을 하겠다는 이메일 답장을 보내왔다. 연구자는 저녁 시간에 온라인 대화방에서 만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당시 집에서는 인터넷을 할 사정이 되지 않고 늦은 시간에 PC방에 가는 것 또한 불편하다고 하였다. 시간을 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을 묻자 해당 답변 대신 특별히 시간을 내야하는 가를 다시 질문해왔다.

저녁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근무 시간중에 회사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하며 필요한 것을 질문하라고 하여 연구자가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사이트 개설 동기 및 개설 과정, 해당 사이트가 표방하는 존재 목적, 개설 당시에 표방한 목적과 현재의 모습이 부합되는 정도, 이용자들의 인구학적 분포, 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과 가장 보람을 느끼는 점,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들을 대할 때의 심정, 회원들이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들, 자살을 감행하게 되는 회원 특성,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점등을 이메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근무중에 답을 해야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답을 한다고 밝히고 전체 질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답을 해왔다. 자신에 대해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도,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혹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냐며 반문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으나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이메일상의 답변이 생략된 문항도 많았고 답

변 자체도 너무 간단한 부분이 많았으며, 운영자 또한 더 필요한 부분은 전화로 하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결국 연구자가 운영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장시간의 통화가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답변을 얻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살 사이트의 심리적 기능과 유지 요인, 이상적인 안티 자살 사이트의 형태, 자살 사이트 문제를 대하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입장에 관한 본인 생각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면담을 완료했다.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차분하게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잘 밝히는 편이었으나, 면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이메일을 하는 경우와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 모두 단시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 결 과)

다음의 내용은 비구조화된 상태에서 진행된 자살시도자와의 면담 내용을 연구자가 내용별로 범주를 정하여 다시 재정리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사용한 단어나 어구를 그대로 포함하려고 하였다. 정리 방법은 Ely(1991), Huberman과 Miles(1994)를 참조하였다.

### pro-자살 사이트 운영진과의 면담

#### 자살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

**자살 사이트 운영진의 결성:**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집단 치료 모임을 통해 만난 선배와 친

1)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일부 정보는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모호하게 기술되었다.

구 그리고 피면담자가 모여서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다. 당시 선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친구와 내담자는 통원 치료중이었다. 병원 모임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서로 친하게 되었고, 담당 선생님께서 밥 사준다고 하여 나가보니 선배와 친구 그리고 피면담자 그렇게 셋이 나와있었다. 선배와 친구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였으므로 서로 어울려서 미친 짓도 많이 하고 그랬으나 피면담자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그들과 자주 어울려 PC방에서 만나곤 했다. PC방에서 야한 것, 엽기적인 것, 무서운 것을 찾아서 웹 서핑을 하다가 자살 사이트도 발견하면서 친구가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다. 선배가 아이템을 대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가 해킹을 맡는 등 두 사람이 주된 역할을 하였고, 피면담자는 돕는 역할을 담당했다. 주운영진인 세 사람이외에도 자살 사이트의 구축을 돕는 아이들이 더 있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내원 사유에 대해 피면담자는, 선배는 헤비메탈 음악을 듣고 싶어했으나 부모님이 못하게 하여 결국 본드도 하고 가스도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자살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 선배는 엽기 사이트로 만들자고 했다. 자살에도 엽기가 많다. 다른 사이트엔 없고 우리 사이트에만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성취감을 주었다. 좋은 자료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외국 사이트를 알파벳 "a"부터 하나하나 검색해나가면서 뒤졌다. 사이트를 만드는 일 때문에 늘 밤을 새웠고 학교에선 잠만 잤다. 선배와 친구는 잔인한 것, 자살할 때 느끼는 기분 등을 광고하자고 하였다. 일본인들이 자살을 즐긴다고 해서 일본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살에 관한 잔인한 동영상도 찾아내고 손목을 굵고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이야기나 옥상에서 무비카

메라들고 뛰어내리고 그러는 등의 이야기도 수집해서 우리 사이트에 올렸다.

하루에 조회수가 1000건에 이를 만큼 방문자가 많아지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우리가 PC방에서 처음 접했던 자살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수보다도 우리 사이트의 방문자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우리 학교 근처 예들 사이에선 우리 사이트가 아주 유명했다.

죽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내서 우리 사이트에 올렸는데, 만 몇건 정도의 조회 건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친구는 한번에 100원만 받아도 돈이 되겠다고 하였고, 선배는 일단 맛을 들이게 한 후 돈을 받자고 했다.

**자살 사이트를 통한 직접적 자살 유도:** 대화방에 “죽고 싶다”고 올리면 선배가 직접 대화를 하였다. 그런 말을 올리는 아이들이 쉽게 죽는 방법을 물으면 선배가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자살 사이트의 중단:** 신고를 받은 경찰의 조치로 중단되었다. 선배가 사람들에게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양심적인 아이여서 이러한 사이트의 존재를 알면 신고를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반장에게 그 사이트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결국 핵심적 운영자 역할을 맡았던 선배가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정신과 치료 경력의 덕을 보았다. 당시 같이 일했던 친구는 금품 갈취로 인해 처벌 받고 있는 중이다.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및 가족적 배경**

**개인적 특성:** ① 인적 사항: 만 1\*세의 남자 대학생으로 군입대 계획중이었다.

② 자살시도 경험: 총 3번이 있었다. 중 2 때 부모님께서 결별을 한다고 하셔서 마치 고아가 될 것 같은 기분에 첫 번째 자살을 시도했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다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려했는데 친구들이 말려서 그만두었다. 두 번째 자살 시도는 고 3 때 있었는데 생활이 무료해져서 아스피린을 과량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반 아이가 계속 시비를 걸기에 몇 번인가를 참아 넘겼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와 끝내 싸움을 벌이고는 담임 선생님한테 찍혀서 학교를 3주를 안나가고 나니 생활이 무료했다. 편하게 죽고 싶었다. 물론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세 번째 자살 시도는 대학 1학년때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에 있었다. 손목을 그었는데 동맥이 안 상해서 죽지 않았다.

③ 행동적 문제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 것 같던 중2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오토바이 폭주족을 했었고, 싸움도 많이 했으며, 불량씨클도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간 적도 있다. 욕하는 면이 있기는 해도 큰 싸움을 벌이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두분 부모님이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큰 싸움을 종종 벌였다. 고 3 올라갔었을 때는 30대 직업 강파들과 싸움이 나서 피면담자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가 크게 다쳤던 경험이 있다. 욕하는 성질 때문에 피면담자 일행이 잘못하였고 그 까닭에 많이 맞았다. 피면담자는 손과 발이 부러졌고 친구는 갈비뼈가 4대 부러졌는데 피면담자의 부모가 여행중이어서 직접 통장에서 돈을 꺼내 해결을 했다. 당시의 친구들은 현재 직업 강파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님께서 결별한다고 하실 때는 영영 화해를 하지 않으시는 줄 알고 집을 나와서 며칠간을 지냈다.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나로 인해 부

모님은 화해를 하셨고 아빠가 잡나온 피면담자를 찾아오셨기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부모님께 인간적으로 무시당한 것 같은 생각에 한달간 집에 안들어간 적도 있다. 동생은 유학가고 싶다는 말 꺼낸지 3주만에 곧 호주 유학을 보내주었는데, 피면담자에 대해서는 보내줄 것처럼 하면서 안보내준다. 미국갈 짐까지 다왔는데 유학을 안보내주었다. 초등학교, 중학교때부터 외국 유학가서 영화 연출 공부하고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친구가 친한 선생님을 모셔왔고, 그 선생님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집에 들어갔지만 부모님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고3때 시험끝나고 나서 아빠와 충돌했을때는 아빠 차를 5일 정도 끌고 나가서 안들어온적도 있다.

④ 심리 치료 경험 유무: 고2 5월부터 고3 1월까지 개업의가 운영하는 유명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고2때부터 욕하는 성질 때문에 선생님과 많이 싸웠는데 그럴 때면 아빠는 엄마보고 정신과 좀 데려가라고 하시고 피면담자는 자신이 미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싫다고 했었다. 다만 여자 친구도 같은 권유를 하여 결국 정신과를 찾았다. 한번 가보았을 때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실망스러웠지만 계속 정신과를 다니다보니 마음이 누그러지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고3때 큰 싸움을 벌일때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⑤ 자신이 기술하는 성격적 특징과 주요한 스트레스 대처 방향: 욕하는 면이 강하다. 친구중 누가 잘못했다 싶으면 무조건 때려주곤 했다. 화가 많이 날 때 사용하는 마인드컨트롤 방법을 당시 다니던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배운바 있다. 친한 사람들은 피면담자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들 한다. 스트레스는 하루종일 참다가 저

녁에 PC방이나 오락실에 가서 해소한다.

**친구 관계:** 중1때 왕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건장한 친구들이 막아주기는 했으나, 그때부터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친한 친구와는 형제와도 같이 모든 이야기를 다한다. 중3때 전학을 왔는데 그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친구 하나도 같은 학교로 전학을 왔다. 고1때부터는 결국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되었다. 여자 친구에게만은 화를 낸 적도 없었고, 손을 잡기까지도 200일이나 걸렸으며, 같이 얘기하는 것이 좋아서 많은 얘기를 했었다. 친구들이 화나는 전화를 해도 여자친구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야 상소리해가며 다시 전화를 하곤 할 정도였다. 여자친구를 사귄 때는 성격도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여자 친구가 명문국립대에 합격하게 되면서부터는 하위권의 대학을 다니던 내담자에게 뼈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었고, 여자친구는 처음엔 싫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가족 관계:** 부모님은 이혼하시는 분위기였는데 피면담자의 첫 번 자살 시도 후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분은 화해를 했다. 피면담자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이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대화를 한다고 하여도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걸 강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피면담자의 아버지와는 중3때부터 사이가 급격히 나뉘었다. 피면담자와 피면담자의 아버지는 서로 골프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아주 과격하게 싸운다. 피면담자는 엄마와도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피면담자의 여동생은 호주에 유학중이다. 자신도 동생처럼 외국으로 영화 유학을 가고 싶으나 가정형편을 생각해서 자제중이다. 그러나,



동생은 쉽게 외국을 보내주고 자신은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외국 유학을 보내주지 않으시는 부모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학교 생활:** 그전의 학교에서는 그러저럭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중3때 전학을 와서는 꼴지를 했다. 밤에는 내내 놀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학교오면 늘 잠을 잤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수업 시간에는 늘 엎드려서 잠을 잤으며 보고서나 과제물은 친구들이 대신 해주었다. 영화 감독에 대한 꿈으로 인해 중간고사 기간에도 영화연출 책을 4번이나 읽은 적도 있다.

####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와의 면담

#####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 과정

**안티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이트의 구축부터 시작하며 운영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과정을 통해 운영자로 선출이 되었다.

① 자살 사이트의 가입: 죽고 싶어하던 친구가 먼저 자살 사이트에 가입을 했는데, 힘들어하는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친한 친구라는 상황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신도 같이 자살 사이트에 가입했다. 자신이 자살 사이트에 가입했음을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그 사이트에 올린 친구의 글에 익명적 존재로서 힘이 될 만한 글들을 남겼었다.

②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이 된 과정: 다른 자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운영진이 되었고, 글을 많이 남긴 까닭에 투표표를 통해서 결국은 그곳의 운영자가 되었다. 그 사이트가 강제 폐쇄되면서 이 커뮤니티로 옮겨왔

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글을 많이 남기다보니 운영진에 포함되었고 결국은 운영자가 되었다. 원래 이 곳을 만든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현재 18세) 가끔 들어와서는 죽고 싶다는 글에, '죽는 게 쉽나' 정도의 간단한 답변만 다는 정도로 활동이 뜸했기에 운영자의 교체가 필요하던 상황이었다.

③ 안티 자살 사이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된 이유: 자살 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친구의 글에 답글을 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에도 답글을 달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이메일을 주고 받게 되었다.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다. 그런 좋았던 기억 때문에 이전에 운영을 맡았던 자살 사이트가 폐쇄 조치를 당한 후 이 사이트를 찾아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답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피면담자가 나서서 답글을 올리며 운영자도 할 마음을 먹었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 과정:** ① 운영자로서 해당 사이트에 대해 갖는 포부 수준: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름대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기에 죽음의 길을 생각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해당 사이트가 회원들이 자기의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 곳이 되기를, 힘들 때 일기장에 쓰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기를 바랐다.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었다.

② 안티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 예전에 누군가가 자살을 생각하며 가입을 했다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그후 자살 안티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적이 있다. 느낀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뿐인데 피면담자가 보낸 편지

에 대해서 기다려지고 고맙다고 답장을 해오면 행복하다.

③ 게시판의 글들에 대한 판단 및 대응: 자신의 상황을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살고 싶은 뜻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응답을 해주면 금세 안타자살로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들의 글에 안타자살 글을 달아주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죽겠다는 글을 단도직입적으로 올리는 사람은 게시판에서 다시 보기 어렵다. 약을 구하거나 하는 글은 발견 즉시 삭제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올 때는 삭제에 역부족을 느꼈었다.

④ 안타 자살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가장 난감했던 경우: 아무 약이든 죽을수만 있는 약이면 다 좋으니 약 좀 구해달라는 메일을 받으면 매우 난감했다. 또한, 게시판에 자살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리는, 자살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웠다.

**자살 사이트에 대한 종합적 판단:** ① 자살 사이트의 주요 활동 연령대: 10대가 제일 많았다. 고등학생, 중학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정도인데, 20대 초반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② 자살 사이트로 오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 청소년들이 토로하는 문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부모와 관련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호소하는 내용이 제각각이지만 그 내용들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님과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실까 싶은 것이 더 큰 원인이고, 형제들중에서 혼자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 부모님보기에 면목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부상으로 인해서 실력이 떨어진 운동 선수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다친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것 때문

에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부모님의 기대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힘든 부분이다.

③ 회원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다가 제일 나중에 떠오른 단편적인 생각이 자살이다.

④ 자살 사이트 게시판의 메시지에 대한 운영자의 생각: 저 정도면 참아낼 법도 한데 저런 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까 싶은 내용이 많다.

**자살 사이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견:**

① 규제 정책에 대한 의견: 속을 보면 그냥 고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그냥 다른 고민에 대하여 들어주는 사이트와 별로 다를게 없는 것이 본 사이트이다. 자살 사이트라고 불리워지는 사이트들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인 폐쇄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② 자살 사이트 관련 보도가 해당 자살 사이트에 미치는 영향: 뉴스에 자살 사이트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면 회원이 증가했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③ 자살과 관련된 전문상담 서비스에 대한 의견: 상담을 받음으로서 뭔가 문제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상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담전문가는 필요없고 우리끼리도 잘 헤낼 수 있다. 학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일 연구자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고 자살 사이트 안에서 활동을 하였더라면 모두들 싫어했을 것이다.

### 운영자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및 가족적 배경: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이메일 질문에서 피면담자는 자살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일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였다. 자신은 감성적인 면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 역시 화목하다고 밝히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피면담자는 만 20세의 사무직 근무중인 여자 회사원으로서, 부모님은 한때 별거중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함께 살고 있으며, 피면담자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라고 했다.

## 논 의

### 연구 결과의 요약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현상들은 외집단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많은 심층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적 주체에 의해서도 탐지가 가능한 즉 공식적으로 드러나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 자살 사이트 운영진 및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와의 면담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살 사이트의 생성과 유지에 관한 많은 부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 자살 사이트의 생성

면담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자살 사이트는 ASH가 처음에 표방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조차도 손쉽게 누군가와 생각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나 죽을 권리에 대한 옹호를 위해서 보다는 엽기 문화에 편승한 폭력성의 자극적인 표출과 주의 획득 및 그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만들어져 있었다. 의사소통 채널의 제약과 혁신적인 정보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서 영역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측면과, 의사소통 채널의 제약으로 인한 감정적 금지 해제(Moon & Han, 1996), 개설자의 일탈적 의도가 결합이 되면서 나타난 것이 자살 사이트라고 볼 수 있었다.

‘쉽게 죽고 싶은 방법’을 찾았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 사이트의 방문은 죽고 싶기보다는 고통없이 현재의 상황을 일단 탈출하고 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의 자살 사이트는 바로 그러한 충동적 욕구 표명의 악의적 활용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운영자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살을 부추기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주요한 역할중의 하나였다.

한편, 안티 자살 사이트는 그 출발은 자살 사이트와 정 반대 의도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운영자나 이용자가 벌이는 적극적 안티 자살 활동에 틈이 생기면 역시 즉각적으로 자살 사이트로 바뀌고 있었다. 개설된 공간이 자살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의 여부보다는 자살과 관련된 적극적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의 여부가 향후 이용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살 사이트가 자살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자리해가고 있다면 폭력성에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항해낼 수 있는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준비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자살 사이트의 유지

계속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여전히 자살 사이트는 존재하고 있었고, 자살 사이트로 인한 자살도 이어지고 있었다. 자살을 생각할 정

도로 힘든 마음을 적절히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한 자살 사이트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형태 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를 보면 면담이 종료된 후 커뮤니티의 이름과 주소를 바꿔서 다시 다른 곳에 개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 그에 대한 반응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속한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살 사이트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 사이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었고, 자살 사이트에 대한 수요를 악용하려는 공급과 깊은 정서적 교류를 원하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 사이트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전송 방법이 점점 지능적이 되어가고 있는 스팸 메일들처럼 자살 사이트들도 단속을 뛰어넘는 교묘한 존재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었다.

#### 운영자가 보는 자살 사이트의 이용을 촉발시키는 문제 영역들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은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했고,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청소년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다른 문제로 인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가족적 배경과 자살과의 관련성은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 사례(문성원, 2002)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이다. 또한,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의 경우를 보면 건디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의 경우 문제 해결 상황에서 현실 도피적 자살을 충동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살에 대한 방법론은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원인은 전통적인 대면

공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자살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하여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무관하게 자살 사이트에 대한 이용 욕구는 그대로 남게 되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적절한 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접속해 들어오는 것인 만큼 자살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다른 대응 방법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들 두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제 2, 제 3의 자살 사이트를 찾게 될 수 있다.

####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

자살 사이트 문제에 대한 현재의 유일한 공식적 대응 방법은 사이트에 대한 규제 정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그냥 서로 고민을 나누는 여타 사이트와 별로 다를게 없는 것이 자신의 안티 자살 사이트라고 밝히며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세부적 이해도 없이 무조건적인 폐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혹은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단순한 규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 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들

두 사람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두 사람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면담 내용 분석은 자살 사이트와 자살 사이트 이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먼저, 자살 사이트 운영진의 경우를 보면, 운영자들이 만나게 된 계기는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집단 치료 모임이었다. 피면담자는 낮은 정도의 좌절 인내력, 자극받기 쉬운 과민한 상태, 폭발적인 기질, 무모함을 비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잦은 싸움을 벌이고, 밤새도록 놀고 있는 기분에 따라서 학교에 가지 않는 등 품행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고등학생 시절에 보이고 있었다. 피면담자를 비롯한 운영진에게 있어서 자살 사이트는 일탈의 또 다른 한 방법에 가까웠다.

피면담자가 평소 큰 싸움을 통해 상대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혔던 것처럼, 피면담자가 참여한 자살 사이트의 잔인한 동영상이나 자살을 돕는 상호작용은 그 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감정적 상해나 생명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또다른 공격성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를 찾아다니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은 인터넷 개설자들의 개인적 의도와 특성을 뒤로 한 채 단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은연중에 자신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면대면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지의 여부도 즉각적으로 확인하게 되지만, 인터넷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은 눈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직접적인 육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 자살 사이트가 가지고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인터넷 윤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자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을 촉발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비행의 새로운 범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개입 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도 자살 사이트의 희생자들 처럼 가족적 배경이 안정되어 있지 못했다. 부모님이 결별로 인해 자신의 처지가 고아처럼

될까봐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했는데, 부모님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모님과 피면담자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했다. 피면담자의 아버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를 이용한 폭력도 사용하였으며 정서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안정되지 못한 가족적 배경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면담자뿐만 아니라 자살 사이트를 찾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일 수 있다. 가족적 문제는 개인적 성격 특성과 결합되면서 자살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식의 일탈 행위를 촉발시킬 수도 있고, 자살 사이트로 인한 희생을 유발해낼 수도 있다. 수직적 관계가 강조되는 부모 세대와 수평적 관계가 보편화되고 있는 청소년 세대간의 의사소통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가 중심이 된 부모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은 다른 곳에는 없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비단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의 부분에서 건강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탈의 한 양상으로서 자살 사이트를 운영했던 자살 사이트 운영진에 비해서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으로 안티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긍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Yalom(2001)이 말하는 집단 치료의 중요한 치료적 요인이다. 안티 자살 활동을 통해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 자신도 치유적 경험을 했을 것이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안티 자살 활동

을 전문가도 아닌 일반 이용자들끼리 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나이나 전문 지식의 정도에 비해서 전체 문제를 조망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보여졌다.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의 운영 내용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 중심의 지지적 네트워크 모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자살 사이트와 청소년

본 연구에 포함된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과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장 활발하게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던 당시 모두 십대 청소년이었다.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가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을 넘겨받기 이전의 운영자도 십대였으며, 특히 자살 사이트 운영진의 경우 사이트의 운영에 함께 참여한 다른 구성원들을 소아청소년정신과의 치료 모임을 통해서 만났다.

청소년들은 자살 사이트 및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 뿐만 아니라 이용에 있어서도 비중이 컸다.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에 따르면 주요 이용자 층은 십대라고 하였는데,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가 안티 자살 활동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준 친구도 자살 사이트 가입 당시 십대였다.

청소년들이 자살 사이트의 운영 및 이용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자살 사이트의 속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적 속성과, 정체감 확립에 있어서 가족 관계가 미치는 영향, 또래에 준거를 두기 쉬운 발달적 특성등이 모두 자살 사이트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금지해제를 촉진시키고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기반으로 하여

충동적 자살을 유발해낼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청소년 및 그 이전 연령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자살 사이트와 상담 심리학자의 역할

자살 사이트 희생자 연구에 이어서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자살 사이트의 문제가 인터넷상의 일시적인 유행이라기 보다는 향후 더욱 깊이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는 것이다. 자살 사이트의 희생자들은 자살 사이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다양한 역기능에 가장 잘 희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예방하기 위한 분석적 연구가 필요하고, 자살 사이트의 개설자들은 인터넷 관련 비행이라는 새롭고 특수하며 향후 더욱 많은 수효가 관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분석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살 사이트 문제를 단지 자살 사이트의 희생자 측면에서만 이해하려 했고, 정부나 각종 단체들의 유해 사이트 규제 활동이나 자녀 보호 운동 등 만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살 사이트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정보 기술과 그로 인한 사회 변화가 맞물려서 발생한 새로운 병리적 현상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더 많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예방을 위한 방안들

#### 교육적 책략

자살 사이트 운영진과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

면 자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어느 정도 폭력적이고 악의적 의도에 기초해서 사이트를 개설하였는지 혹은 자살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 건강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자살 사이트를 비롯하여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로 인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정규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 인터넷 이용자체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 전달 방법이 인터넷 문화와 그다지 잘 부합되지 않는 전통적인 강의식에 가깝고, 교육의 내용이 특정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특정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흥미 유발의 정도가 낮고 교육의 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럴 땐 이래야 한다 중심의 지침 나열은 일방적인 바른 생활 교육과도 같다.

인터넷 이용 교육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인터넷 문화에 맞게 대상 학생의 눈높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대면 의사소통 상황과 의사소통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그러한 구조적 차이는 의사소통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발생시키는지, 감정과 사고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지, 그러한 변화는 각 상황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등을(Moon & Han, 1996; 문성원, 1999a,b) 학생들의 실제 감정 및 인지 체험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학습하게 한다면 인터넷이 왜 때로는 매우 위험해지는가에 대한 이해도 보다 더 손쉬워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의 마련도 자발적일 수 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연계가 된 자살 구호 체계의 마련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에서 가장 난감했던 상황으로, 약을 찾는 메시지나 동반 자살을 하자는 메시지가 등록될 때라고 하였다. 단도직입적으로 약을 구하려고 하거나, 동반 자살을 하자는 메시지가 실제 자살 행동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 하였던 안티 자살 사이트 운영자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에는 누군가의 급박한 자살 의도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방법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가 없어서 만일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체적인 동반 자살 모임을 탐지하고 이를 제지하려한다고 하여도 마땅히 의뢰할만한 곳이 없다. 만일 이런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면 누구든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적절한 처치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결성된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필요하다면 IP주소의 추적을 통해서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자살의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살 사이트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사이트에 대한 규제책 이전에 자살 관련 구호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더 우선적일 수 있다.

### 이용자 중심의 지지적 네트워크 구축

안티 자살 사이트의 운영자는 연구자가 전문가가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 문자 자신들끼리도 잘 해나갈 수 있음을 단호히 밝힌바 있다. 안티 자살 사이트가 또래들만의 힘으로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존립했다는 점은 대안적인 안티 자살 사

이트의 구축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안티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또래들로부터 지지를 전달 받고, 또 자신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은 치료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청소년들 중심의 안티 자살 사이트가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는 점은 자살 사이트 매개 자살의 예방과 관련하여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용자 중심의 지지적 안티 자살 사이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그들 내부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티 자살 사이트가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자살 연락장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구성 및 배열에 있어서도 전문적 고려가 필요하다. 가령, 보편적인 인터넷 게시판의 운영은 회원들끼리 그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서 내용만 안티 자살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안티 자살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살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는 집중적인 안티 자살 활동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메시지 교환 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Greist 등은(1973; Zarr, 1984에서 재인용)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같이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동을 기술함에 있어서 컴퓨터는 판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인터넷은 심리적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즉, 위험 요소만 최소화된다면 또래 집단 중심의 안티 자살 네트워크는 자살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해갈 수 있다.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많은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 많은 사례를 다루지 않은 점은 전통적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적타당도 문제를 떠올리게 하지만, 사례수를 확보해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터넷 현상은 기술적으로 계속 변화해나가고 관련된 현상들도 계속 변화해나가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Sudweeks & Simoff, 1999). 관찰 시점의 차이는 현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시행하는 동안에도 자살 사이트 관련 현상들은 계속 변화해나갔기 때문에 자료 수집 시점에 따라서 자료가 계속 달라짐을 볼 수 있었다. 만일 사례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이질적 사례들이 수집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자살 사이트와 관련된 현상들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례 중심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살 사이트로 인한 희생자 및 자살 사이트 그 자체와 운영자에 대한 연구에 이어 자살 사이트의 일반 이용자 중심의 연구가 후속될 수 있다면 자살 사이트에 대한 이해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0, 12, 31). 2000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http://www.khan.co.kr>에서 2001, 6, 1 인출.



- 경향신문 (2002, 2, 24). '안티-자살 사이트'에서 자살 모의. <http://www.khan.co.kr>에서 2002, 3, 4 인출
- 권준모, 이훈구, 이수정 (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통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36.
- 문성원 (1999b). 제 11장. 사이버 공간과 상담. *한규석과 황상민 (편). 사이버 공간의 심리*. pp.287-311. 서울: 박영사.
- 문성원 (2002).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61-485.
- 문성원 (2003).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삼성출판사 (1986). 새 우리말 큰사전(제 4판 제 2권). p.2383.
- 송종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 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준 (2000).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에서 지각되는 사회적지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자신문 (2003, 10, 15). 청소년 60.4% "나는 사이버 중독".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에서* 2003, 11, 4 인출.
- 전자신문 2000. 10. 10일자 기사: 어린이, 성인·자살 사이트 접속률 급증.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에서* 2002, 3, 4 인출.
- 조한혜정 (2000). N세대 새로운 행동 패러다임 연구의 방향: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 형성학'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8.
- 조희제 (2001). 인터넷과 죽음, 즐거운 '오바'. <http://www.cultizen.co.kr/issue/sub.htm>에서 2003, 6, 1 인출.
- 최정훈, 이훈구, 한종철, 윤진, 정찬섭, 오경자 (1986).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법문사.
- 통계청 (2000). *사망원인 통계 연보*.
- 통계청 (2003).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http://www.nso.go.kr>에서 2003, 9, 4 인출.
- 한겨레신문 (2000, 12, 15). 인터넷 통해 자살 원하는 이 '촉탁살해'.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에서* 2002, 3, 4 인출.
- 한겨레신문 (2002, 4, 19). [자살] 되살아난 안티 자살 사이트 망령.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에서* 2003, 5, 1 인출.
- 한국일보 (2003, 8, 31). 기사: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20대 여성 2명 음독. *PC통신 천리안 뉴스 검색(검색일 : 2003, 9, 30)*.
- 황숙연, 박병우, 이경식 (2000). 유방암 환자를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연구. *사회복지연구*, 15, 291-310.
- Alao, A. O., Yolles, J. C. and Aimenta, W. (1999). Cyber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56, No. 11, 1836-183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ASBS. FAQ part 1/4: Introduction <http://www.ashbusstop.org/intro.html>에서 2003, 8, 28인출.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86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Ross, D., & Ross, S. A. (1963).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1), 3-11
- Barak, A. (2001). SAHAR: an Internet-based emotional

- support service for suicidal people.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Psychology and the Internet: A European Perspective." Farnborough, UK. 5th ed. Allyn & Bacon Inc
- Baume, P., Cantor, C. H., & Rolfé, A. (1997). Cybersuicide: The role of interactive suicide notes on the Internet. *Crisis*, 18(2), 73-79.
- Baume, P., Rolfé, A., & Clinton, M. (1998). Suicide on the Internet: A focus for nursing intervention?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7(4), 134-141.
- Bolger, N., Zuckerman, A., & Kessler, R. C. (2000). Invisibel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53-961.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llins, A., & Loftus, E. (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Connell, R.(2003). Net friends grill their lives in barbecue chamber of death. Retrived February 28, 2003, from <http://mdn.mainichi.co.jp/waiwai/face/0302/21suicide.html>.
- Dobson, R. (1999). Internet sites may encourage suicide. *British Medical journal*, 319, 337. Retrieved May 23, 2001, from ProQuest database.
- Ely, M. (1991). *Doing Qualitative Research: Circles within Circles*. London: The Falmer Press.
- Faiola, A. (2003, 8, 24). "Internet Suicides Plague Japan: Young People Make Death Pacts With Strangers", *The Washington Post*, p.A01.
- Fiedler, G & Lindnerk, R.(2001). Suicide Fora on the Internet Retrieved August 25, 2003, from <http://www.magpiebridge.net/suicidefora.htm>.
- Fontana, A., & Frey, J. H. (1994). Interviewing.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361-376). SAGE Publications.
- Huberman, A. M., & Miles, M. B. (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428-444). SAGE Publication.
- Janson, M. P., Alessandrini, E. S., Strunjas, S. S., Shahab, H., El-Mallakh,R., & Lippmann, S. B. (2001). Internet-observe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2(6). 478. [Abstract] retrived March 5, 2002, from PsyInfo Database.
- Jones, S.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 Keith H. and Williams(2001). The connection between media and suicidal behavior warrants Serious Attention. *Crisis*, 22(4), Editorial, Retrieved November 5, 2003, from <http://www.hhpub.com/journals/crisis/2001/ed-v22i4.html>.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1985). Social factor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Lieberman, M. A. (1988). The role of self-help groups in helping patients and families cope with

- cancer. *CA Cancer Journal of Clinician*, 38, 162-168.
- Marsden, P. (2001). Is Suicide contagious? A case study in Applied memetics. *Journal of Memetics-Evolutionary Model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5. Retrieved August 25, 2003, from [http://www.cpm.mmu.ac.uk/jom-emit/2001/vol5/marsden\\_p.html](http://www.cpm.mmu.ac.uk/jom-emit/2001/vol5/marsden_p.html).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Scheeres, J. (2003). A virtual path to suicide: Depressed student killed herself with help from online discussion group.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3/06/08/MN114902.DTL>.
- Scheeres, J. (2003). Suicide 101: Lessons Before Dying. Retrieved September 1, 2003, from <http://www.wired.com/news/culture/0,1284,57444,00.html>.
- Schopler, J. H., & Ganlinsky, M. A. (1993). Support groups as open systems: a model for practice and research. *Health and Social Work*, 18, 195-207.
- Smith, W. (2003). [www.s-u-i-c-i-d-e.com](http://www.s-u-i-c-i-d-e.com): Suicide advocacy goes online. Retrieved August 25, 2003, from <http://www.nationalreview.com/comment/comment-smith061203.asp>.
- Yalom, I. D. (2001). 집단 정신 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혜림 과 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3년에 출판).
- Ystgaard, M. (1997). Suicide among young people? Is it contagious? Retrieved July 11, 2003, from <http://www.med.uio.no/ssff/engelsk/menuyouth/Ystgaard.htm>.
- YTN (2003). 11월 6일 뉴스 여대생 2명 엽기적 살해.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311/06/YTN/v5426396.html>
- Zarr, (1984). Zarr, M. L. (1984). Computer-mediated psychotherapy: Toward patient-selection guidelin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1), 47-62.
- 원 고 접 수 일 : 2003. 1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 19  
게 제 결 정 일 : 2004. 2. 3

##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Suicide Sites and the Anti-Suicide Sites: Two Case Studies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e suicide sites were grouped into pro-suicide sites and anti-suicide sites, an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sites were analysed in view of sites' masters. Through the online and offline, a master of the suicide site and a master of the anti-suicide site were interviewed and the contents of interviews were analysed by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sites, and the psychological background of those masters. The suicide site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psychopathology of a site master, and the anti-suicide site was related with therapeutic experiences of both the master and users. But, the anti-suicide site was sometimes involved with the occurrences of the suicides because of the lack of knowledges and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potential dangerousness of suicide sites. The master of anti-suicide considered the conflict with the parents as a major source of suicide impulse, the adolescent as a major victim. The role of counseling psychologists with the suicide sites, prevention of suicide were discussed.

*Key Words* : suicide site, anti-suicide site, psychopathology, adolescent, crisis intervention, prevention